

7월 16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7월 16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 증시 `인텔`발 랠리 `..나스닥 3.5%↑	뉴욕증시가 15일(현지시간) `인텔 효과`와 경기지표 개선에 힘입어 급등세를 연출했음. 업종 구분없이 상승세가 진행된 가운데 기술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256.72포인트(3.07%) 상승한 8,616.21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3.17포인트(3.51%) 급등한 1,862.9를,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26.84포인트(2.96%) 오른 932.68을 각각 기록했음. 인텔이 3분기 매출 전망을 기대 이상으로 제시한 점이 투자심리를 북돋웠고 특히 인텔의 실적개선 기대감이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기술주 전반이 더욱 큰 폭으로 상승했음.
연준, 미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실업률 전망도 올려	미 연준은 6월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이날 공개했음. 연준은 의사록에서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전망치를 각각 상향 조정했음. 연준은 우선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 -1.4%로 제시했고 이는 지난 4월 FOMC에서 제시했던 -1.3~-1.6%보다 상향 조정된 수치임. 앞서 연준은 지난 4월 FOMC 회의까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회 연속 하향 조정했고 이를 감안하면 미 경제에 대한 연준의 시각이 최근들어 개선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연준은 그러나 실업률도 상향 조정했음. 연준은 지난 4월 FOMC에서는 올해 미국의 실업률이 9.2~9.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6월 회의에서는 이같은 전망치를 9.9~10.1%로 상향 조정했음.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 6월 기준으로 26년래 가장 높은 9.5%를 기록하고 있음.
제조업지표 개선에 `제 조업체` 강세	6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와 6월 산업생산 등 제조업 경기지표가 양호한 수치를 내보인데 힘입어 제조업체들이 강세를 나타냈음. 다우 지수 구성종목인 중장비업체 캐터필라는 6% 가까이 급등했고, 다우 종목인 제너럴 일렉트릭(GE)도 5% 넘게 상승했음. 은행주도 강세를 보였음. 다우 종목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JP모간체이스가 4% 안팎 급등했음.

제목	주요 내용
뉴욕 제조업 경기 `작년 4월 이후 최고`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한 7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마이너스 0.6을 기록했다. 이는 마이너스 9.4를 기록했던 전월보다 크게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작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시장의 전망치도 크게 상회했음.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의 컨센서스로는 6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마이너스 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지수는 기준점인 `0`을 하회할 경우 제조업 활동 위축을 의미하고, `0`을 상회하면 제조업 경기의 회복세를 나타냄. 7월 지표는 뉴욕지역의 제조업 경기가 위축국면에 있지만 위축 강도가 이전보다 크게 완화됐음을 보여줌. 특히 기준점에 바짝 다가섬에 따라 향후 경기회복 기대감도 자극하고 있음.
中 외환보유고, 사상 첫 2조달러 돌파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2분기 말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1780억달러 증가한 2조1,320억달러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음. 이는 로이터의 전문가 예상치(2조달러)를 웃도는 것. 외환보유고는 올 1분기에 77억달러 늘어난 데 이어 2분기에 급증. 2분기 동안 월별 외환보유고 증가분은 4월 551억4,000만달러, 5월 806억달러, 6월 421억달러였음.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무역흑자 급증으로 2년 반만에 두 배로 증가. 또 외환보유고 규모는 2위인 일본의 2배에 달하며, 총 글로벌 외환보유액의 29%를 차지함. 현재 중국 외환보유고의 65%는 미 국채 등 달러화 자산에 투자되고 있음.
BOJ, 기업 자금지원 조치 연장	BOJ는 이날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를 결정하고 기준금리 역시 기존 0.1%에서 동결. BOJ는 연초부터 실시한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매입 조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고 고정금리 자금운영 역시 3개월 더 연장키로 했음. 한편, BOJ는 내년 회계연도 GDP전망을 마이너스(-) 3.1%에서 -3.4%로 하향했다. 소비자물가(CPI) 전망은 -1.5%에서 -1.3%로 높였음.
6월 취업자 4천명 ↑... 공공부문 증가 탓	정부의 한시적 일자리 지원책에 힘입어 취업자수가 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취업자수는 2,39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00명이 늘었음. 취업자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줄곧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이다 6월 들어 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 절조정 취업자수도 2,358만3,000명으로 전월에 비해 22만4,000명 증가. 계절조정 실업률은 4.0%로 전월대비 0.1%포인트 높아졌음.
한화그룹, 상반기 매출 15.7조...올 투자 1.8조 확대	한화그룹의 상반기 매출액은 15조6,654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7% 증가. 올해 경영계획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5,100억원 초과 달성한 것. 세전이익도 6,467억원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1.6% 늘었음. 경영계획 예상치보다는 2,700억원 웃돌았음. 특히 주력 계열사인 한화석유화학(009830)이 상반기에 1,900억원을 상회하는 세전이익을 올린 것으로 잠정 추산.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